

150km 씩씩투... 안방서 7승 쏜다

호랑이 좌완 에이스 양현종, 오늘 넥센 금민철과 맞대결
선발 출전맨 타선 살아나 올 시즌 8번 등판서 6승 수확



KIA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홈팬들 앞에서 7승 사냥에 나선다.
6승 행진중인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이 21일 안방에서 넥센 히어로즈 금민철과의 좌완 맞대결을 벌인다.
20일 군산경기 선발 예정이었던 양현종은 18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롯데전 대신 넥센전에 출격하게 됐다.
지난 18일 우천취소가 결정된 뒤 양현종은 내심 패배를 불렀다. 올 시즌 두산을 제외한 6개 팀을 만난 양현종은 8번의 등판에서 6승 1패를 수확했지만 유일하게 넥센에게만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4월 25일 목동경기에 선발로 출격해 6과 3분의 1이닝 동안 3실점 한 양현종은 이날 승패없이 마운드를 내려왔다. 우천취소 덕분에 양현종은 넥센전 첫 승에 도전 기회를 얻었다. 광주팬 앞에 서게 된 것도 양현종에게 기분 좋은 일이다. 양현종은 지난 3월30일 삼성과의 홈경기 이후 무등경기장 마운드를 밟지 못했다.
양현종은 "그동안 원정경기 선발로 나서 7경기 연속 광주에서 공을 던지지 못했는데, 무등경기장에서 승리를 거두고 싶었다"며 "금민철과의 맞대결도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금민철은 올 시즌 2.72의 평균자책점으로 완봉승 포함 4승을 기록하며 맹활약하고 있는 강자. 하지만 양현종은 "좋은 투수들과 맞대결을 하면서 더 발전하고 싶다"며 "이번에는

내 힘으로 꼭 승리를 챙기고 싶다"고 밝혔다.
올 시즌 윤석민·서재용·로페즈 등 다른 선발진들이 잘 던지고도 여러차례 승리를 놓쳤던 것에 반해 양현종은 타선의 확실한 지원 사격을 받는 등 '승운'이 많이 따르고 있다. 다른 투수들과 비교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승리에 대한 간절함은 마운드에서보다 덕아웃에서 더 간절하다.
양현종은 "다른 선배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덕아웃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안 게임은 양현종이 넘어야 하는 부담감이다. 광주우행을 꿈꾸고 있는 양현종은 "마운드에서는 대표팀에 대한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라운드 밖에서는 다른 좌완 투수들의 움직임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또 조범현 감독님이 대표팀 사령탑을 맡게 되면서 몸 관리,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이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일클럽 챔피언십에서의 자신감과 경험을 앞세워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고 밝혔다.
4년차지만 여전히 KIA 마운드의 막내인 양현종은 선배 투수들의 승리, 광주우행 티켓 그리고 꼭 도전해보고 싶은 탈삼진왕을 꿈꾸며 2010시즌을 그려나가고 있다.
/근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부진 나지완 2군 추락

룸메이트 최희섭 "안타깝다" 토로

'한국 시리즈 MVP'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나지완이 20일 2군으로 추락했다.
동거동락하며 굵은 뺨방울을 흘렸던 룸메이트를 떠나보낸 최희섭은 "뺨을 시집 보낸 기분이다"며 안타까움 심정을 토로했다. 최희섭은 전지훈련지에서도 독방을 마다하고 나지완과 룸메이트를 자처하면서 친동생 같은 후배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었다. 2008년 시즌이 끝나고 포항에서 의기

투합해 2009년 함께 팀 우승을 견인하기도 했던 두 선수는 지난 겨울에도 포항을 찾아 절치부심 2010년을 준비했지만 초반 결과는 좋지 못했다.
나지완은 지난해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국시리즈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이 됐지만, 올 시즌 40경기에 나와 0.237의 타율로 3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자신의 26번째 생일이었던 19일에도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했지만 4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결국 나지완은 20일 오전 2군행 통보를 받았다. 급히 광주로 달려가 집을 쉼긴 나지완은 21일부터 진행되는 롯데와의 2군 경기를 위해 다시 부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KIA는 2군으로 내려보낸 나지완의 자리에 멀티플레이어 최용규를 불러들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차범근 수원 삼성감독 성적부진에 자진사퇴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차범근(57)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사령탑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차범근 감독은 20일 오후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8일까지 팀을 이끌고 감독직에서 내려오기로 했다"며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감독을 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다.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차 감독은 이어 월드컵 기간에 SBS 축구해설 계획에 대해선 "해설은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중력과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다"며 "지금 상태에서 중계할 자신이 없다. SBS의 배려는 감사하지만 스스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04년부터 수원의 지휘봉을 잡았던 차 감독은 일곱 시즌을 마치지 못한 채 사령탑에서 내려왔다. 차 감독의 계약기간은 2011년까지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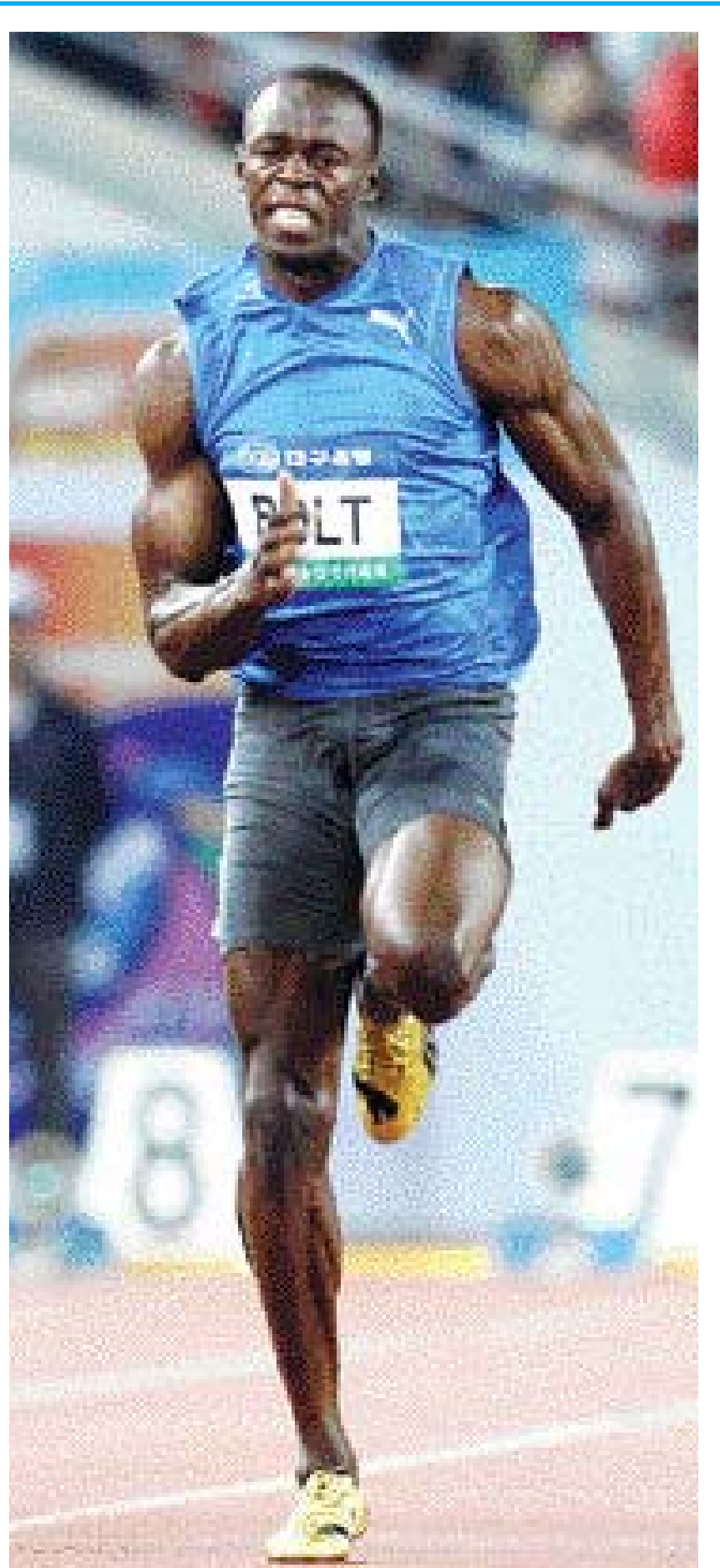
한국축구대표팀이 20일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오후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부터 주공격수 자리 싸움

허정무호 투톱조합 '박주영 짝' 찾기
승부사 안정환·이동국 등 생존 경쟁

허벅지 부상으로 벗어난 박주영(모나코)과 발등 부상의 악몽에서 탈출한 염기훈(수원), 그리고 '원조 황태자' 이근호(이와타)와 '젊은 괴' 이승철(서울)은 물론 백전노장의 힘을 살리겠다는 안정환(다렌스)과 허벅지 부상에 우울한 이동국(전북)까지 공격수 6인방의 생존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다시 시작된 축구대표팀 소집훈련은 한층 높아진 훈련 강도와 함께 23명의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겠다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번 26명의 명단을 결정하면서 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각 포지션당 2명씩 경쟁체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공격수 자리에는 예상을 깨고 6명의 선수를 포진했다. 4-4-2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4명의 공격수만 필요하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지만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을 다친 이동국 변수 때문에 총 6명

을 배치하면서 가장 극심한 경쟁이 펼쳐지게 됐다.
이 때문에 부상 치료를 받느라 훈련에서 빠진 이동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공격수 자원들은 경쟁하듯이 구슬땀을 흘리며 허정무 감독의 눈도장을 받는데 열중했다.
6명의 공격수 자원 가운데 허정무 감독의 총애를 받아왔던 투톱 조합은 단연 박주영-이근호 조합이다. 박주영과 이근호는 2008년 2월 허정무호 출범 이후 나란히 8골과 5골을 터트리며 총 13골을 합작했다. 특히 2008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에선 나란히 1골씩 터트리며 박주영-이근호 조합의 힘을 과시했다.
이근호는 지난 2008년 10월 두 차례 A매치에서 연속 2골씩 터트리며 박주영과 더불어 허정무호의 최고 황태자로 군림했다.
이승철은 허정무 감독이 발굴한 새내기 스트라이커로 지난 1월 대표팀에 첫 발탁된 이후 6경기에서 3골을 터트리며 백업 요원으로 자리를 굳힐 태세다.
이에 따라 허정무 감독은 일본과 평가전(24일·일본 사이타마)을 시작으로 박주영의 짝을 찾는 투톱 조합의 실험과 함께 백업 공격수 낙점에 집중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번개 사나이 우사인 볼트

한 걸음만 더 빨랐어도 세계신기록 가능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4·자메이카)가 달구벌에서 한 걸음만 빨라 달렸다면 세계신기록도 가능했다.
볼트는 지난 19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에서 9초86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작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세계기록(9초58)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올해 첫 100m 레이스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볼트는 지난해 타이슨 게이(28·미국)가 작성한 대회기록(9초94)을 0.08초 앞당겼다.

대구대회 42걸음에 질주

작년 41걸음으로 세계신

기록을 달성한 셈이다.
볼트는 이날 100m를 42걸음으로 달렸다. 볼트가 세계신기록을 썼던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41걸음째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 걸음당 평균 2.43m씩 뛰어 세계기록을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대구대회에서는 한 걸음당 평균 2.38m씩 뛰어 최상의 컨디션 때보다 약간 뒤진 기록이다.
다른 선수들이 평균 44~45걸음으로 100m를 달리는 것에 비하면 3~4걸음 이 더 빠른 것이다.
볼트의 최대 장점은 큰 보폭과 발을

내딛는 빠른 속도(보폭)이다. 195cm의 단거리 선수로서는 큰 키인 볼트는 긴다리의 큰 보폭으로 100m를 질주한다.
육상전문가들은 "예전에는 단거리 선수들의 신장이 175~185cm로 보폭보다는 보폭이 중요시 되었다"면서 "하지만 볼트의 등장으로 요즘은 보폭이 기록 단축의 비결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볼트의 단점은 느린 스타트이다. 이날 볼트의 스타트 반응속도는 0.179초로 8명 중 두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하지만 특유의 긴다리를 활용한 질주로 10m도 안돼서 다른 선수들을 따라 잡았다.
보폭이 크면서 보폭도 빠른 볼트를 추월할 선수는 당분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0m에 출전한 한국 선수 중에서는 10초47이 최고기록인 여호수아(23·인천시청)가 10초48을 기록, 7위를 차지했고 임희남(26·광주시청)과 김국영(19·안양시청)은 각각 10초59와 10초74에 머물렀다.
'세기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여자 100m에서는 현역 최고기록(10초64) 보유자인 카멜리아 지터(31·미국)가 11초00을 찍어 베이징올림픽 200m 금메달리스트 베로니카 캠벨 브라운(자메이카·11초05)을 따돌리고 이 대회에서 2년 연속 정상을 밟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메시의 바르셀로나 서울온다

8월 K리그 올스타팀과 한판대결

"최고의 멤버로 한국 축구팬에게 최고의 경기를 선사하겠다"
오는 8월 한국을 찾아 한국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팀과 친선경기를 갖는 스페인 명문 클럽 FC바르셀로나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공격수 리오넬 메시 등이 포함된 최고의 멤버로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호안 올리베르 바르셀로나 사장은 20일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와 바르셀로나 간 친선경기와 관련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경기는 한국과 스페인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바르셀로나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바르셀로나는 2004년 처음 한국을 찾아 K-리그 수원 삼성과 친선경기를 벌여 0-1로 졌다. /연합뉴스